

대관령 교회 클럽 이야기

대관령교회는 올해로 56주년을 맞이한 교회로,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강원도 대관령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 20여명의 불티단원과, 40여명의 T&T단원, 12명의 교사와 함께 대관령교회가 강원도 최초로 어와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어와나를 통하여 대관령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HAPPY700에서 MIT TEAM과 SUMMER CAMP를, 겨울에는 아시아의 알프스로 잘 알려진 대관령의 깨끗한 설원에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즐거운 SKI CAMP를 했습니다.

대관령교회가 AWANA KOREA와 함께 이런 CAMP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어와나 CAMP에 대관령지역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한 것처럼 이곳 대관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은 대관령교회 권영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도전정신과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이곳 대관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관령교회 어와나 클럽은 불티단과 T&T단원 약 40명의 단원들과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사13명 그리고 교육전도사1명으로 구성되어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어와나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어와나를 하면서 더욱 뜻 깊은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대관령교회 어와나 친구들이 어와나 게임즈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대관령에서 부천까지 가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용기를 낸만큼 많은 자신감을 얻고 돌아온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관령교회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르게 어와나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평일이나 토요일에 어와나 클럽이 운영되지만 대관령교회는 주일예배시간에 어와나 클럽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시간에 어와나 클럽을 함께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와나 클럽에 참여 한다는 것입니다. 어와나 게임을 통하여 선생님과 아이들이, 아이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 되고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생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핸드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함으로써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예배 전에 어와나 클럽이 운영되므로 모든 아이들이 어와나 클럽에 참여해야 한다는것에 있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이나 내성적인 아이들은 경쟁해야하는 어와나 게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게임시간을 피해서 교회에 오거나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담하고 선생님들이 서로 상담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주일예배와 어와나 클럽을 함께 하는 것 보다 상황이 된다면 토요일에 클럽이 운영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와나 클럽시간을 토요일로 옮겨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와나는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와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대관령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 될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관령교회 어와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대관령교회 친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5년동안 대관령교회가 어와나 클럽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령교회의 비전은 우리 아이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관령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쳐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디딤돌같이 하나님마음에 합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9년 대관령교회 어와나 기도제목

1. 대관령교회 어와나 친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소서.
2. 대관령교회 어와나 클럽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Story of Daegallyung-Church

Story of Daegallyung-Church

Celebrating the 56th anniversary this year, Daekwanryong Church located in Daekwanryong, Kangwon Province, enjoys fresh air, water and a fine view.

Daekwanryong church began awana clubs with 20 sparkies, 40 T&T clubbers and 12 leaders in 2005. Looking back, Daekwanryong Awana had lots of events. There was HAPPY 700 SUMMER CAMP with MIT teams in summer, and SKI CAMP was held in the snowfield at Daekwanryong known as Alps in Asia with many kids, parents and leaders attending.

It was a great pleasure for Daekwanryong church to hold these camps with AWANA KOREA. It was an opportunity to deliver the Gospel to the kids in Daekwanryong area who joined the Awana camps. It might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pastor Young-ki, Kwon, in Daekwanryong church to hold such events in Daekwanryong. Like Joshua and Caleb, pastor Kwon believed that with God's help, there's nothing impossible, and encouraged and supported us to perform the events. Without his challenging spirit, prayer and positive support, it could be impossible to hold such events in Daekwanryong.

There are 40 kids in sparks and T&T clubs and 13 devoted leaders and 1 education minister in Daekwanryong awana, operating like a family.

The year 2009 will be remembered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Daekwanryong awana kids first participated in Awana Games. We needed courage to go to Buchon from Daekwanryong, which remained a meaningful memory for our kids and leaders, for they gained confidence in themselves when they came back.

Daekwanryong awana kids gather at the time of Sunday worship,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s that usually gather on weekdays or Saturday.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gathering at the time of Sunday worship. It is good for all kids to join awana club. With awana games, kids and leaders have got along with one another, getting more and more familiar. All kids have become more positive and confident than before. Learning awana handbooks, they have learned by heart God's Words and begun to follow the Words.



It is also a weak point for all kids to be supposed to join awana club before attending the worship. Physically weak or shy kids are reluctant to compete the games and often come to church after games or even don't come to church. After discussing this matter with kids and leaders, we are considering gathering on Saturday because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if possible.

Awana club, however, has more merits. It is influential, which our kids prove. They confess they will live a holy life as God's children. They pray all the people living in Daekwanryong may listen to Gospel and come to Jesus. They not only pray but also continue to deliver the Gospel to their parents and friends. So, new friends and parents are coming to church every Sunday led by Daekwanryong awana kids, which will continue in the future. Daekwanryong church kids are sure of being God's children. They are sure that they will live in the kingdom of Heaven.

For the past 5 years of Daekwanryong awana, the effort of both the leaders and the kids by sharing the Words and memorizing the Words, with love and pray has produced such a fruit in our kids' life.

The vision of Daekwanryong church is that all the kids have the conviction of being God's children and live a holy life from now on. We wish that as God's children, they may glorify God through their influential life at school, home and communities so that listening to their Gospel, many people will come back to Jesus.

Also, we wish God may bring up our kids to be influential workmen like David working to enlarge God's Kingdom in political, economical, social, educational,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Our prayers for 2009.

1. Daekwanryong awana kids may be God's soldier to deliver Gospel to people at home, school and communities.
2. Daekwanryong awana kids may be led to have God's vision and live a life glorifying God.

